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3. 11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가정예배
시편 · 빌레몬서 · 히브리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학예배
장 조 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감사의 열매

Contents

- 8 매일성경묵상 빌레몬서 1장 ~ 히브리서 1장
- 12 1과 구속의 노래
- 20 매일성경묵상 히브리서 2장 ~ 히브리서 7장
- 28 2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 36 매일성경묵상 히브리서 8장 ~ 히브리서 13장
- 44 3과 기쁨의 열매
- 52 매일성경묵상 시편 86편 ~ 시편 91편
- 60 4과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 68 매일성경묵상 시편 92편 ~ 시편 97편
- 74 부록 야곱

11

November 2013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 제7차 성찬식	4 히브리서 2장	5 히브리서 3장	6 히브리서 4장
10	11 히브리서 8장	12 히브리서 9장	13 히브리서 10장
17 추수감시주일(가족연합예배) 추수감시주일 특별찬양예배	18 시편 86편	19 시편 87편	20 시편 88편
24	25 시편 92편 ← 제8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	26 시편 93편	27 시편 94편 →

12

Dec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빌레몬서 1장	2 히브리서 1장
7 히브리서 5장	8 히브리서 6장	9 히브리서 7장
14 히브리서 11장	15 히브리서 12장	16 히브리서 13장
21 시편 89편	22 시편 90편	23 시편 91편
28 시편 95편	29 시편 96편	30 시편 97편

교회 주요일정

11월 3일

제7차 성찬식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가족연합예배)

추수감사주일 특별찬양예배

11월 25일~27일

제8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

나의 주요일정

- ① 충청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③ 충청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⑥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⑦ 제8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11월 25일~27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청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감사의 열매

우리의 죄 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부정하고 패역한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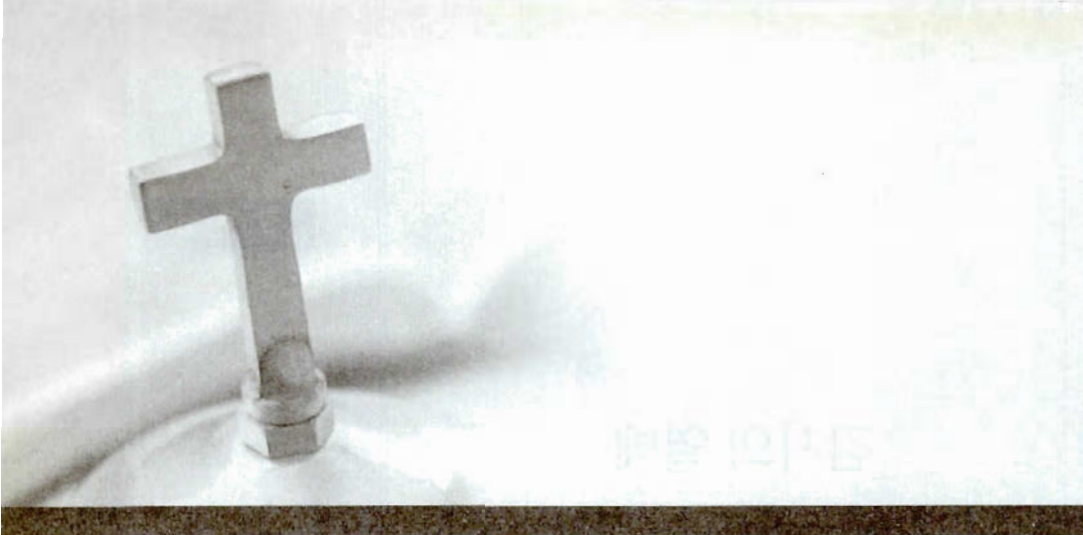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진실로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은총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죄 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은총을 사모하며
겸손히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주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참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2013년 11월을 맞이하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금요일

빌레몬서 1장
찬송가 220장

목상노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부탁하고 있는 이 서신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중요성은 한 영혼을 살리는 간구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바울은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9절). 그것은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네시모와 바울은 아마도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10절). 주의 은혜로 만나게 된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아들”이라는 호칭을 통해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갈망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빌레몬의 도망간 노예였다는 것이었습니다(11, 14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돌지라”(16절).

아마도 이 일로 인해 성도 간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는 사유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쳤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기가 모두 계산하겠다고 말합니다(18절). 왜냐하면 그 모두가 주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17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며,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지 않아서입니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 유익하므로(11절) :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이다. 그것은 종의 이름으로 흔한 것이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름을 이 구절로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이름 그 자체만큼 유익합니다”라고 부탁하고 있다.

감히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문 1:10)

I appeal to you for my son Onesimus, who became my son while I was in chains. (Phim 1:10)

기도제목

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사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② 출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2

토요일

히브리서 1장
찬송가 94장

묵상노트

히브리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1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2절). 그것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저자는 ‘훨씬 뛰어남’(4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면서 그것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며 비교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천사(4절)였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14절). 천사는 예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시 2:7)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삼하 7:14)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6절).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공평한 규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8~9절).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입니다. 주는 영원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실 것입니다(11~1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비교하면서 주님을 믿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아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 1:2)

but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whom he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and through whom he made the universe. (Heb. 1:2)

• 낳았다(5절) : 여기서 인용한 시편 27은 다윗 계보에 관한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아들을 ‘낳는’ 것은 왕권의 부여 행위인 대관식을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승계에 해당한다(참조 히 1:4).

기도제목

- ①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믿심으로 고백하며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게 하소서.
-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참된 감사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 신자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살후 2:13).

원래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롬 3:23).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롬 8:2).

죽음에서 생명,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을 주셨습니다(요 14:6).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십자가였습니다(롬 5:8).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이 감사가 외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1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구속의 노래

| 초 점 |

구속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 찬 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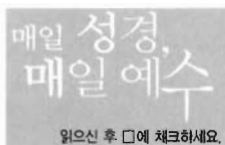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비오니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 본문 | 출애굽기 15:13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3 주일

4 월요일

☐ 히브리서 2장

5 화요일

☐ 히브리서 3장

6 수요일

☐ 히브리서 4장

7 목요일

☐ 히브리서 5장

8 금요일

☐ 히브리서 6장

9 토요일

☐ 히브리서 7장

애굽의 바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병거와 군대를 결집시켜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출 14:5~7).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은 바로의 추격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출 14:10).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출 14:11~12). 이에 대하여 모세는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포했습니다.

출 14:13~14 _____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 홍해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의 군대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진실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바다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바다였습니다.

홍해, 하나님의 구원의 바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출 14:21~22

이스라엘 백성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너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과학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놓였던 하나님의 구원의 실재를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시 106:9

시 136:15

진실로 믿음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며 바라보았던 홍해, 그 홍해는 자신들의 눈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킴으로써, 영원히 자신들을 자유롭게 만든 구속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애굽에게 위협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홍해,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

홍해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와 백성에게 심판의 바다였습니다.

출 14:23~25 _____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도 똑같이 홍해를 걸어서 지나가기 위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홍해는 그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권능으로 임하였던 구원의 손길은 심판의 손길로 변화였고, 애굽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두렵고 불행한 멸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출 14:26~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_____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_____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_____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홍해 앞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와 백성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유리하게 여겨졌던 홍해는 자신들을 집어삼키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진실로 그들의 교만을 사정없이 부수어버리셨습니다.

구속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은 홍해에서 각각 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 14:30~31 _____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은 각각 승리의 노래와 슬픔의 애가를 부르는 백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은 패배와 멸망의 노래를 슬픔과 고통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그 어떤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을 진정으로 만끽하며 느끼십시오.

※ 출애굽기 15:1~18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나누어 보십시오.

모세를 통하여 한 민족을 구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속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하신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권세와 마귀를 깨뜨리신 주님을 향하여 구속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신 주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을 널리 전하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속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출 15:13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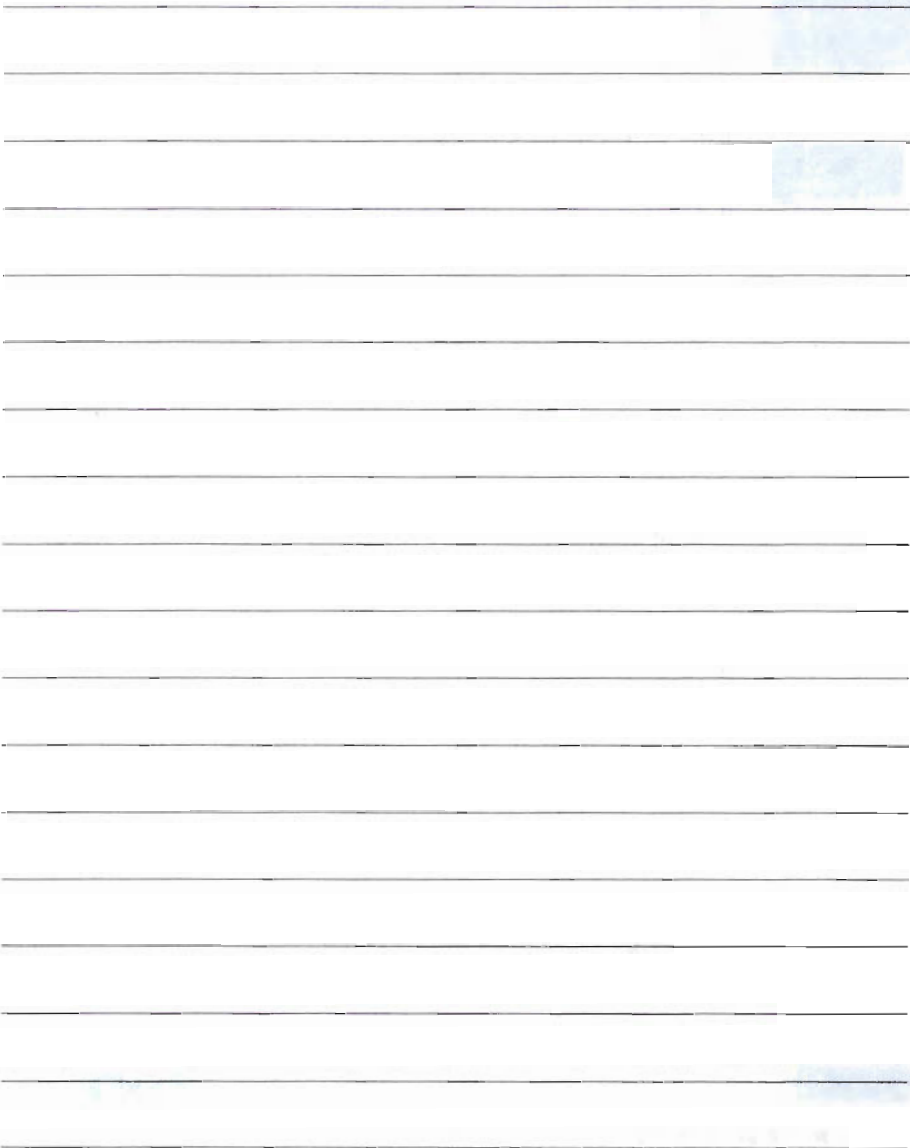
사 63:16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구속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총현교회의 5대 목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설교노트





* 설교 중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심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4

월요일

큰 구원

히브리서 2장
찬송가 251장

묵상노트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큰 구원”(3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친히 주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함께 증언하신 것이었습니다(3~4절). 저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의 창시자가 있으며, 그 창시자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설명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10절).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5절). 사람을 통해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6절).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9절). 모든 사람을 위해 그가 죽으심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10절).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13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17절).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18절).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큰 구원은 바로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 역시 거의 없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17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18절).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움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1절). 그러니 부디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완벽하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 누구인가가 어디에서(6절) : 본문은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누구인가가 어디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저자가 성경 어느 부분을 인용하는지 맞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히 2:3)

how shall we escape if we ignore such a great salvation? This salvation, which was first announced by the Lord, was confirmed to us by those who heard him.(Heb. 2:3)

기도제목

① 구원의 크고 놀라움을 알아 그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5

화요일

히브리서 3장
찬송가 249장

묵상노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1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강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8절). 주님을 가벼이 여기고 경건치 못한 삶을 영위하는 것만큼이나 주님을 떠나는 모습은 없습니다.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따랐습니다. 큰 권능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주의 은혜와 더불어 주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8절). 주님을 시험하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거절했고 주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12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13절).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변하기 마련이며, 우리의 마음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외치는 권면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부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소망과 확신과 자량을 끝까지 굳게 잡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 3:14)

We have come to share in Christ if we hold firmly till the end the confidence we had at first.(Heb. 3:14)

· 집(4절): 보통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식구(2절)와 건물(3~4절)이라는 양 측면이 모두 포함되었다.

기도제목

①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완고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총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6

수요일

히브리서 4장
찬송가 43장

목상노트

안식할 때가

저자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음을 말합니다(9절). 시편 95:11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제칠 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5절) 라고 말하면서 안식할 때가 분명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확인합니다(8절). 저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 영토를 향해서 담 대하게 나아갔으나 영토를 다 정복하지 못했기에 안식할 수 없었다고 말 하며, 우리에게 아직 안식의 날이 남아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안식에 들어감에 대해서 “두려워할지라”(1절)라고 당부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안식할 때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합니다(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날카롭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있으며(13절), 그분 앞에 우리 모두를 포함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언제나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15절). 그의 돕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마지막 안식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마십시오. 에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만을 따르십시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히 4:9)

There remains, then, a Sabbath-rest for the people of God;(Heb. 4:9)

• 여호수아(8절): 헬라어로 예수를 말한다. 마라도 저자는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고했다는 암시를 하는지도 모른다. 저자의 논지는 여호수아가 전 영토를 복속시키지 못했다는 것과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도제목

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

7

목요일

히브리서 5장
찬송가 320장

묵상노트

속죄의 일을 담당했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였습니다(1절).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언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2절). 속죄제는 죄를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속죄제를 담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론을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4절). 저자는 이것을 존귀라고 말하며 주님의 부르심의 귀한 은혜를 보여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5절). 저자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8절). 대제사장은 존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벨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10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십니다(히 4:15).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8절).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9절).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롬 8:2). 우리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선악을 분별하십시오(14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히 4:16).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히 5:5)

So Christ also did not take upon himself the glory of becoming a high priest. But God said to him,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Heb. 5:5)

• 벨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6절) : 벨기세덱은 가나안 족속의 제사장 겸 왕이다(창 14:18). 벨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왕권을 겸비한 제사장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장성한 자로 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8

금요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 6장
찬송가 452장

묵상노트

믿음의 성도들에게 초보를 버릴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표현된 강력한 권고는 진지한 것이었습니다(11절). 초보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젓이나 먹어야 할 자이며(히 5:12), 어린 아이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을 의미했습니다(히 5:13).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2절). 완전한 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타락한 자가 되어(6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6절). 게으름과 믿지 아니함은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참지 못함도 역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12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4~5절). 그와 반대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12절). 저자는 그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19절).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롬 12:11),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을 살펴 보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십시오.

• 타락한 자(6절) : 이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거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강퍽해져서 회개를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회개의 유일한 방편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히 6:11)

We want each of you to show this same diligence to the very end, in order to make your hope sure. (Heb. 6:11)

기도제목

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예수, 더 좋은 언약의 보증

9

토요일

히브리서 7장

찬송가 269장

묵상노트

멜기세덱의 신비함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3절). 그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1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 즉 십일조를 바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6절). 소독의 십분의 일인 십일조는 레위 족속에게 바치는 하나님의 예물이었습니다(9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을 통하여 저자는 멜기세덱이 높은 분(7절)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한계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수요가 많았던 것은 죽을 때문이었습니다(23절).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27절). 그러나 그 죄는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었습니다(19절).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17절),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며(24절),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21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 없다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7절). 자유로운 생활과 개인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서 어느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우리는 언제나 지배를 받는 영혼임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이 제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히 7:22)

Because of this oath, Jesus has become the guarantee of a better covenant. (Heb. 7:22)

• 멜기세덱(1절) : 멜기세덱은 3절에서 신비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리고 참된 대제사장이시며, "거룩하고 악의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26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 ② 제3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11월 25일~27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저주하시오.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버리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 한 '원형 극장의 벽에 적힌 글'에서-

2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 초 점 |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 찬 송 |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 본 문 | 요한복음 8:48~53

⁴⁸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⁴⁹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⁵⁰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 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⁵¹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⁵²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⁵³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 나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0 주일

11 월요일

☐ 히브리서 8장

12 화요일

☐ 히브리서 9장

13 수요일

☐ 히브리서 10장

14 목요일

☐ 히브리서 11장

15 금요일

☐ 히브리서 12장

16 토요일

☐ 히브리서 13장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요 8:47). 유대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언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 들린 자로 여기며(요 8:48,52), 몇 가지의 논쟁 끝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요 8:59).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의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여겨 죽음에 내몰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요 10:33 _____

※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거나 귀신 들린 자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요 8:48 _____

※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거나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이요 귀신 들린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대리자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는 대리자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믿음에 이르는 진리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요 8:51). 그리고 이러한 선언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자

유대인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요 8:52 유대인들이 이르되 _____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평가는 한 마디로 무엇입니까?

※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요 8:54~56)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발끈하며 반문하였습니다(요 8:56~58).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 치려했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분노를 피하여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요 8:59).

※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겔 10~11장)

믿음으로 하는 질문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백성이었습니다.

※ 유대인들은 왜 어리석은 백성입니까?

요일 5:10 _____

달 1:15 _____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이요, 귀신 들린 자로 단정지어놓았습니다. 따라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는 유대인의 질문은 믿음에 이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싶다면 모든 선입관과 불신을 버리고 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입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 16:16 _____

요 20:31 _____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메시아 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각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면, 유대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의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참된 신앙에서 떠나서 유대인들처럼 행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 12:2 _____

유 1:20~21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 ② 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 순간 보호하여 주소서.
- ③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설교노트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주제별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문법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중국어 1000문장 | 어종(사)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말의 요점이라고 말합니다(1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이십니다(2~3절).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섬기는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님을 저자는 말합니다(2절).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형을, 그림자를 보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와 모형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5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진짜를 볼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6절).

더 좋은 언약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입니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13절). 왜 옛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주님과 맺은 언약은 결국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파기되었습니다(9절).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10절). 이것은 이러한 대제사장. 바로 그 자신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뿔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저자는 그 첫 언약이 무효하지 않으며(7절), 결국 우리를 구원할 이는 우리의 노력과 성과와 성취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모형(5절) :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치(INSV), 복사본(ESV), 혹은 장차 지어질 미래적 성전을 묘사한 ‘계획, 개요’의 의미를 갖는데(42:15), 이를 통해서 성도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히 8:1)

The point of what we are saying is this: We do have such a high priest, who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the Majesty in heaven, (Heb. 8:1)

기도제목

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따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도가 막히소서.

기도노트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12

화요일

히브리서 9장
찬송가 283장

묵상노트

모세는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19절).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20절). 이 언약의 중요함은 이것을 통해서 현재까지의 비유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8절).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1절)을 설명합니다. 그 장소와 방법과 그 상황을 모두 다 설명합니다. 그 실제의 중요성은 죽음에 있었습니다(12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은 후에야 유효했습니다(17절). 저자는 죽음에 대해 말한 뒤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22절). 그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매번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25절).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끝내셨습니다(26절). 단번에,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었습니다(27절).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심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이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 유언(16절) : 이 '유언'(Will-NIV)은 '계약'(covenant-NASE), '언약'(testament-KJV) 등으로 번역되었다. '언약'은 봉인된 문서로서 구술자의 사망 시에 비로소 개봉할 수 있었다. '계약'은 동등한 생활 간에 체결되기도 했지만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통 계약 관계가 체결될 때는 피 흘림을 수반했다. 이 모든 것은 '효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28)

so Christ was sacrificed once to take away the sins of many people; and he will appear a second time, not to bear sin, but to bring salvation to those who are waiting for him.(Heb. 9:28)

기도제목

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활동지·동선·복지에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히브리서 10장
찬송가 286장

묵상노트

• **굳게 잡고(23절)** : 굳게 잡으려는 권면은 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적대 세력을 영두에 둘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적대 세력들은 각 도시에서 유대인이 행하던 의례적 관습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타협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죄를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11절). 그러나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10절). 그것은 새로운 살 길이었습니다(20절). 유대인들은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29절). “예수님도 좋고 구원도 좋지만 율법이 꼭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도 좋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유대인의 제사로 되돌아 갈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25절).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만 했습니다(22~24절). 저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36절). 왜냐하면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39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고생과 근심도, 더 이상 환란과 곤난도 당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오직 관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25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다 끝났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진 자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let us draw near to God with a sincer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having our hearts sprinkled to cleanse us from a guilty conscience and having our bodies washed with pure water. (Heb. 10:22)

기도제목

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인내로써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6절). 히브리서 저자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며(1절),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 줍니다. 그것은 피상적이 아닌 너무나도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4~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8~17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였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22~31절). 그리고 저자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32절)라고 말하며 이것이 끝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믿음을 “따라”라고(13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결국 본향을 찾는 것입니다(14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26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35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23절), 이것에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40절).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믿음은 내가 아닌 아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히 11:13)

All these people were still living by faith when they died. They did not receive the things promised; they only saw them and welcomed them from a distance. And they admitted that they were aliens and strangers on earth. (Heb. 11:13)

• **증거(1절)** : 헬라 성서라 문서에서 ‘소유권 증서’라는 의미를 가진다. 헬라인 독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곧 천상에 속한 영속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기도제목

① 나를 믿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15

금요일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찬송가 150장

묵상노트

저자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며 성도의 모습을 말합니다(4~5절).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보게 되며 죄인임을 확인하기 때문이었습니다(3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 역시 이와 연결됩니다(15절).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예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16~17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기억하지 말라”(25절). 이 강력한 경고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29절).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는 주님의 소리가 땅을 진동할 것입니다(26절). 그러나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습니다. 이에 저자는 예수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자”(28절)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받으십시오(계 22:20).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십시오(15절). 이렇게 살피는 이유는 우리에게 꼭 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주의 은혜로 예수를 바라보며 주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 소멸하는 불(29절) : 신 42:4에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그분의 궁극적인 계사를 경솔히 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Heb. 12:2)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예수를 바라보며 은혜를 소망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를 따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저자는 항상 주님이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권면(1~2절) 역시 이것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며(3절),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이유(4절) 역시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손길들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5절)라고 권면하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8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 주고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7절),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17절). 이것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25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의 끝부분에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게 됨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하라(1절), 잊지 말라(2절), 생각하라(3절). 이것은 모두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만이 대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천국을 잊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사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13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구한 도성(14절)에 들어가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히 13:20)

May the God of peace, who through the blood of the eternal covenant brought back from the dead our Lord Jesus, that great Shepherd of the sheep, (Heb. 13:20)

•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 (24절): 이달리아 출신으로서 지금은 다른 곳에 살면서 이달리아로 다시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이것으로 이 히브리서는 로마에서 저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은 일반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한 대행 182.

기도제목

- ①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노물

내 인생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또 영생은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는지

신기루를 잡는 것 같고
허공을 치는 소리와 같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는 것 감사할 줄 모르고
끝없이 잡으려고 쫓아가며
지나간 것 그리워하고
놓친 것 아쉬워하고
후회와 절망밖에 없었네

그러한 이 죄인에게 성령님이 오셨네
내 눈을 여시니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 보이네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 사랑 감당할 수 없어 눈물만 흘리네

석귀수(권사, 10교구)

3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기쁨의 열매

| 초 점 |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 찬 송 |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본문 | 신명기 28:47~48

⁽⁴⁷⁾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⁴⁸⁾네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멧예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7 주일

18 월요일

□ 시편 86편

19 화요일

□ 시편 87편

20 수요일

□ 시편 88편

21 목요일

□ 시편 89편

22 금요일

□ 시편 90편

23 토요일

□ 시편 91편

오늘의 본문은 주를 섬기는 이들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섬기는 일은 그 섬김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주를 온전하게 따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쁨이 주를 따르고 섬김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음적인 각도로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일이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다윗이 누린 기쁨의 열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 43:4 _____

시 100:2 _____

시 37:4 _____

시 90:14 _____

다윗은 진실로 완전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확신하였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1).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기쁨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가르치시는 것들이 기쁨의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5:11~12 _____

요 15:11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히 12:2). 그리고 끝 날에 신실한 종들이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기도 하셨습니다(마 25:21).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 야고보, 바울, 베드로가 전하는 기쁨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십시오.
(약 1:2~3 ; 고후 6:3~10, 1:24 ; 롬 5:3 ; 벧전 4:13)

기쁨은 순종의 열매

기쁨은 순종의 한 부분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 4:4 _____

살전 5:16 _____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이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단지 주와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기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실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추구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 32:11 _____

시 67:4 _____

눅 10:20 _____

주를 섬김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로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주를 섬김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은 의무가 될 만큼 중요합니다.

신자들이 누려야 할 궁극적인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기쁨들은 우리의 영혼과 참된 필요를 만족시키기에 턱없이 모자라지만,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쁨이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얻으려는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각자의 영혼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즐거움, 아니 참된 신자들의 기쁨과 즐거움 자체이신 삼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시 30:11 _____

행 2:28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에 순종하게 하소서.
- ③ 우리 구역(팀)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설교노트



※ <총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총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시편 86편
찬송가 543장

묵상노트

다윗은 여호와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1절).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고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2~3절).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4~7절). 다윗은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님만이 위대하시며 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8~10절). 그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며 그에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노래합니다(11~13절). 다윗은 궁핍과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고맙다고 포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14~17절).

다윗은 그의 대적들로 인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대적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니라고 그는 고백합니다(10절). 그리고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온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세상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 **일심으로(11절)** :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 마음을 한 군데로 집중함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니이다(시 86:10)
For you are great and do marvelous deeds; you alone are God. (Ps. 86:10)

기도제목

① 항상 주님께만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영광스럽다고 노래합니다(1~3절). 그는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시온에서 났고 또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민족들이 시온에서 났다고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4~6절). 또한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가 자신들의 근원을 시온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7절). 세상 모든 민족의 근원으로서의 시온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며 나라였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계시며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에만 머무르는 나라가 아니며, 장차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을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 위의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한계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도 쉬지 않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날을 기다리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셀라)(시 87:6)

The LORD will write in the register of the peoples: "This one was born in Zion." Selah(Ps. 87:6)

• **등록(6절)** : 구원받은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하심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시편 88편
찬송가 413장

묵상노트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마치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고 한탄합니다(1~5절). 그는 주님께서 그를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고 그를 괴롭게 하셨으며, 또 주님께서 시인이 아는 자를 그에게서 떠나게 하셨기 때문에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6~9절). 시인은 주님께 죽은 자에게서 기이한 일을 보거나 유령들이 주를 찬송할 수 없으며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무덤에서 선포할 수 없고 흑암과 잊음의 땅에서 주의 기적과 공의를 알 수 없음을 말하며 오직 자신은 주께 부르짖어 아침에 그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10~13절). 시인은 그에게 진노하시고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자신의 영혼을 버리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시느냐고 호소합니다(14~18절).

심각한 고통 가운데 처한 시인은 주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죽음에 이를 만큼 크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시는 다른 시와는 달리 하나님의 회복을 확신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가 호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체면과 지위와 자존심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1:28).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잊음의 땅(12절) : 음부. 죽음 이후에는 곧 잊어버림을 당한다는 의미이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시 88:13)
But I cry to you for help, O LORD; in the morning my prayer comes before you. (Ps. 88:13)

기도제목

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② 제8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11월 25일~27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그의 왕위는 해 같이

21

목요일

시편 89편

찬송가 518장

묵상노트

시인은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1~2절).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와 거룩하심과 능력과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3~8절). 시인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10~13절)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공의로 높아지는 것을 찬양합니다(14~18절).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의 대적을 멸하시고 그의 왕위를 하늘과 함께 하셨고(19~29절) 또 그의 후손이 주님의 계명을 어기면 징계하시지만 주님의 인자와 성실함을 다 거두지는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노래합니다(30~37절). 그러나 시인은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셔서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왕위를 땅에 앉으시며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고 한탄하며(38~45절) 자신의 때가 짧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진노를 그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46~51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던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삼하 7장). 하지만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따랐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 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시 89:49)

O Lord, where is your former great love, which in your faithfulness you swore to David?(Ps. 89:49)

• 라합(10절) : 바다 괴물. 애굽, 바다를 지배한다는 라합조차도 하나님께는 완전히 꺾뜨려진다는 의미이다.

기도제목

① 왕이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22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금요일

시편 90편
찬송가 243장

묵상노트

모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1~2절). 그는 사람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밤의 한 순간과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짧아서 결국 주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합니다(3~6절). 주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진노하실 때 인간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인은 한탄합니다(7~10절). 그는 주님께 인생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11~12절).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돌아오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13~17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살피시면 그 어떤 인간이라도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의 진노를 피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100년을 살기 힘든 인생을 위해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입니다.

• **티끌(3절)** : 철저히 부서지는 흙가루나, 파편. 인간은 반드시 육체가 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

Teach us to number our days aright, that we may gain a heart of wisdom.(Ps. 90:12)

기도제목

① 인생의 윤희함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23

토요일

시편 91편

찬송가 415장

묵상노트

시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피난처와 요새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1~4절). 그는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과 많은 사람이 옹드러지는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의 보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5~8절).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고 말하는 그에게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9~12절). 그리고 사자와 독사를 밟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13~16절).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찬 시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밤과 낮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결국 넘어지고 말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그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를 넘어뜨리려 사자처럼 덤비고 독사처럼 다가오지만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시 91:14)

"Because he loves me," says the LORD, "I will rescue him; I will protect him, for he acknowledges my name.(Ps. 91:14)

• 새 사냥꾼의 올무(3절) :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계획한 올무나 위협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기도제목

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참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동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이적	장소
정신적질환 치유 및 축사	두 귀신 들린 자	거라사(가다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가버나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갈릴리 지방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	두로
	간질하는 소년	변화산 근방
	회당의 귀신 들린 자	가버나움
자연현상에 대한 이적	꼬부라져 퍼지 못하는 여인	갈릴리 한 회당
	풍랑을 잔잔케 하심	갈릴리 바다
	오천 명을 먹이심	갈릴리 바닷가
	물 위를 걸으심	갈릴리 바다
	사천 명을 먹이심	갈릴리 바다
	물고기 입 속에서 돈을 꺼내라 명하심	가버나움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심	예루살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심	갈릴리 바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가나
시망극복	부활 후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심	갈릴리 바다
	아이로의 딸	가버나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나인
	나사로	베다니

예수님의 이적들 ②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이적을 행하셨다. 이적이란 단순히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로 진행되어 통상적 자연 질서를 잠시 중단하고 인간 구원을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각 때에 필요한 놀라운 일을 보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표적이 되는 것만이 참 이적이다. 이처럼 믿음과 복음의 전제 조건으로 주어진 이적의 진의를 모르게 되면 단지 기복적 입장에서 이적을 위한 이적만을 요구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심지어 사탄의 간계에 의한 사악한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관점에서 각 대상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확증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각 이적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특징	성구
돼지떼 몰사 사건이 뒤따라 일어남	마 8:28~34 ; 막 5:1~15 ; 눅 8:27~35
바리새인들의 비방을 받음	마 9:32~34
바리새인들의 비방을 받음	마 12:22 ; 눅 11:14
이방인도 치유해 주심	마 15:21~28 ; 막 7:24~30
아비의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심	마 17:14~18 ; 막 9:17~29 ; 눅 9:38~43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봄	막 1:23~26 ; 눅 4:33~35
18년 된 귀신을 단숨에 쫓으심	눅 13:11~13
자연에 대한 제어 능력	마 8:23~27 ; 막 4:37~41 ; 눅 8:22~25
이적의 능력과 사랑의 조화	마 14:15~21 ; 막 6:35~44 ; 눅 9:12~17 ; 요 6:5~13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심	마 14:25~27 ; 막 6:48~51 ; 요 6:19~21
이적의 능력과 사랑의 조화	마 15:32~38 ; 막 8:1~9
제자들에게 전지 전능성을 입증하심	마 17:24~27
심판의 능력이 되심을 암시하심	마 21:18~22 ; 막 11:12~26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함	눅 5:1~11
죄로 깨어진 인간의 혼인잔치를 완성하심을 보여줌	요 2:1~11
제자들에게 부르심과 소명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	요 21:1~11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심	마 9:18~25 ; 막 5:22~42 ; 눅 8:41~56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심	눅 7:11~16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보여주심	요 11:1~44

4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묵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초점|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찬송|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본문|요한복음 9:1~7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4 주일

25 월요일

☐ 시편 92편

26 화요일

☐ 시편 93편

27 수요일

☐ 시편 94편

28 목요일

☐ 시편 95편

29 금요일

☐ 시편 96편

30 토요일

☐ 시편 97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으니,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과 색채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오직 어둠만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불행함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시각장애에 의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질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가 맹인이 된 것이 죄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편견이 더욱 그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요 9:1 _____

제자들의 무지함

제자들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요 9:2 _____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제자들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판단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요 9:34 _____

유대인들은 고대의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맹인이 된 것이나, 고난을 겪는 일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죄나 임신 기간 중에 어머니 태아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이 닥쳐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도 역시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시 51:5). 그러나 성경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듯이, 예수님 또한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후 12:7 _____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 9:3 _____

사 61:1 _____

예수님의 선언은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게 해 주는 선언이었으며, 부모님의 죄 때문에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
다는, 부모에 대한 원망을 벗어버리게 해 주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1 _____

2 _____

3 _____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요 9:6~7 _____

예수님의 표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이 전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영혼에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의 육체의 장애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시각장애보다 더욱 심각한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각장애입니다.

※ 영적인 시각장애는 무엇입니까?

요 12:37 _____

요 4:48 _____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표적을 추구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보여 주신 어떤 표적에도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까닭에 정작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주님의 음성에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마 16:26). 참으로 영적인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의 많은 신자들 역시, 이 시대의 가치와 사상에 사로잡혀서 제자들과 동일하게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 123:1 _____

사 40:26 _____

히 12:2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 ②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 ③ 충현교의 5대 목표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설교노트



다산의 애민정신 배움의 힘

다산의 애민정신 배움의 힘

이름

학급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25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월요일

시편 92편
찬송가 549장

묵상노트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각종 악기로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인은 그를 기쁘게 하는 주의 행하신 일의 크기와 생각의 깊음을 노래합니다(1~5절). 그는 어리석고 무지하며 악한 자들은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패망하고 결국은 흠어지고 말 것이라고 단언합니다(6~9절). 하지만 주님께서 시인을 높이셔서 원수와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고백합니다(10~11절). 그는 의인은 마치 여호와의 집에 심은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어 여호와와 정직하심과 그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12~15절).

포로기 후기 성전 예배에서 안식일 아침 희생제사 때에 불려졌던 것으로 생각되는 이 시에서 시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심은 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밟고 있는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거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의 생각은 우리가 살피지 못할 만큼 깊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 **들소의 뿔(10절)** : 시인이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대시 92:5)
How great are your works, O LORD, how profound your thoughts!(Ps. 92:5)

기도제목

①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에 온 성도들은 기도로, 앞장선 일꾼들은 십자가를 붙들며 섬기게 하소서.

기도노트

시인은 스스로의 권위로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세계를 견고히 세우시고 영원부터 세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1~2절). 그는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나 높이 계신 여호와와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보다 크다고 고백합니다(3~4절). 시인은 확실한 주의 증거와 주의 집에 합당한 거룩하고 영원무궁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5절).

태초부터 영원까지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현대 과학 안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연의 거대한 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자연의 힘은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배신한 피조물을 위해 피조물과 동일한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완전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여 영원무궁하시리이다(시 93:5)

Your statutes stand firm; holiness adorns your house for endless days, O LORD. (Ps. 93:5)

· **큰 물(3절)**: 태초의 혼돈의 바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암시한다.

기도제목

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의 모든 일정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이끄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시편 94편
찬송가 342장

묵상노트

세계를 심판하시며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시인은 빛을 비추어 주시길 호소합니다(1~2절). 그는 악인들이 오만하고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악한 자를 압제하면서 여호와가 보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고 한탄합니다(3~7절). 계속해서 시인은 악한 자들에게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셔서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8~11절). 그는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환난 날에 평안을 누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12~15절). 시인은 그를 붙드시고 주님의 위안으로 그의 영혼을 즐겁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16~19절). 그는 악한 자는 주와 어울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요새와 반석이시므로 여호와께서 악한 자를 끊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20~23절).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것을 본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셨다면 그는 벌써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심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이미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1절):
하나님의 복수는 개인적
인 앙갚음이 아니라 억압
받는 자를 구원하고 압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집행을 의미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시 94:22)

But the LORD has become my fortress, and my God the rock in whom I take refuge. (Ps. 94:22)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주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십자가 목회를 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28

목요일

시편 95편

찬송가 376장

묵상노트

시인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1~2절). 여호와께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과 바다와 육지까지도 지으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3~5절). 계속해서 시인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지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기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고 말합니다(6~7절).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이 브리바와 맛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이 미혹되어 주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8~11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물이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것도 창조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노력, 그리고 그들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시인의 경고처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선 선했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했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양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시 95:6)

Come, let us bow down in worship,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our Maker.(Ps. 95:6)

• 시험하고(9절) :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 쓰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다.

기도제목

① 우리를 구원하신 선했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29

금요일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시편 96편

찬송가 398장

묵상노트

온 땅을 향해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요청하는 시인은 날마다 그의 구원과 영광을 만민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1~3절). 그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존귀와 위엄과 능력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외칩니다(4~6절). 계속해서 시인은 만국의 족속들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선포합니다(7~10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밭과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때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와 진실하심으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는 찬양합니다(11~13절).

시인은 모든 열방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우상에 불과하며 거짓되고 허무한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거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사 42:8). 우리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 모든 신들보다(4절) : 헛된 우상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시 96:5)

For all the gods of the nations are idols, but the LORD made the heavens. (Ps. 96:5)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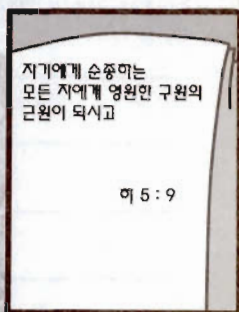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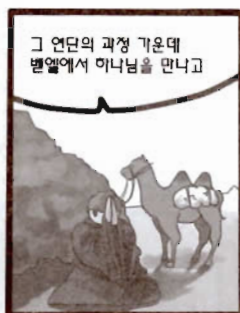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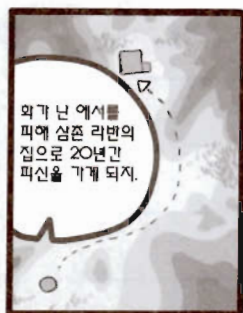
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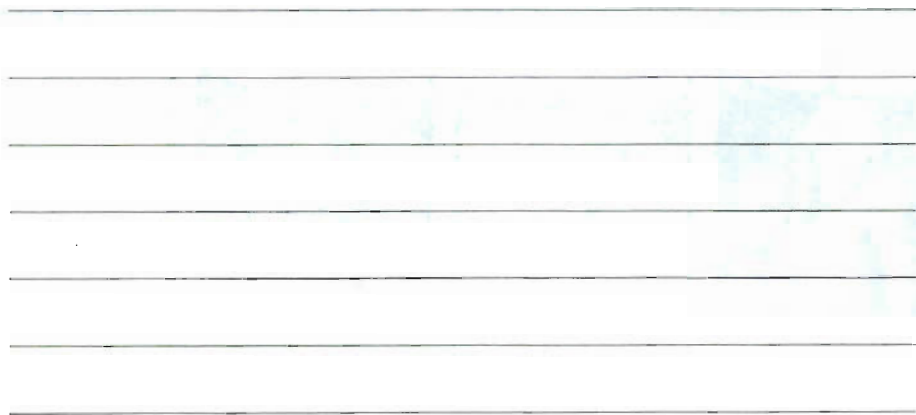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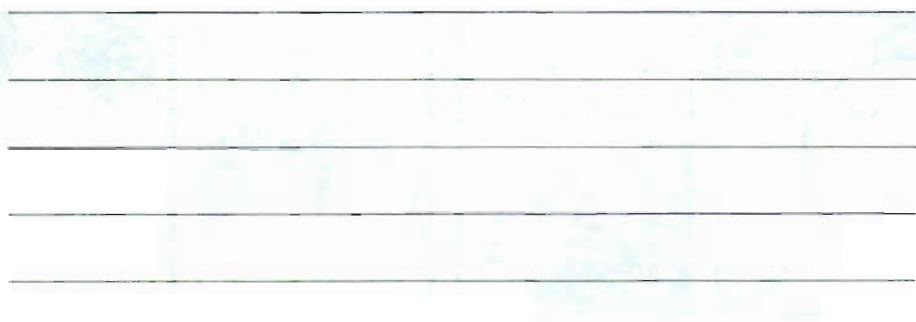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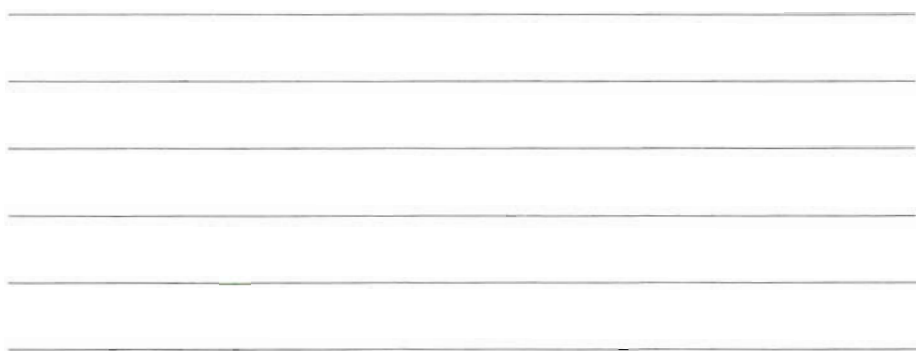
기도노트

야 곱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3년 11월

Copyright© 2013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한정민 하옥성 임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